

「자연을 아끼는 마음을 갖자」

윤 수 희



등산객이 북한산에서 쓰레기 줍는 모습

인간은 자연환경의 토대위에서 지금껏 살아왔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야 한다. 그토록 중요한 자연이기에 더이상 오염되지 않고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세계도처에서 자연보호운동이나 환경오염예방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오래전부터 범국민적으로 자연보호운동을 벌여와 그 성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고 국민들에게 더욱 쾌적한 자연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설립한 바도 있다. 나는 등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서울근교의 산들을 휴일이면 찾곤한다. 돌이켜볼 때 옛날에 비하면 등산객들의 자세나 질서의식은 그야말로 엄청나게 좋아진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도 아니다. 아직도 행락철에 산을 찾으면 도처에서 비닐봉지등 휴지가 바람에 날리고 있고 오물에 의한 악취로 인하여 기분이 상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그럴때마다 나는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곤하는데 대체적으로 볼 때 우선은 산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행락객을 위한 화장실, 쓰레기장, 취사장의

충분한 확보와 이들 시설이나 오물의 신속한 제거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아직은 충분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이 문제인것 같고 가장큰 문제의 하나는 산을 찾는 사람들이 아직도 자연보호의식이나 공동생활 정신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각자가 편리한대로 용변을 본다든지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그리고 지나치게 많은 음식을 준비해갔다가 남는 것을 아무렇게나 방기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대외관계가 획기적인 경제발전의 결과로 현저하게 증대되었고 이에 따라 많은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찾게 되고 이들중 적지않은 사람들은 장기체류하게 된다. 나는 등산로에서 이들 국내거주 외국인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를 청하면 그들은 밝은 미소로 답해오기 마련이지만 이들이 주위에 흩어진 오물이나 그것들의 냄새에 대하여 무슨 생각을 마음속으로 하는지는 쉽게 짐작이 가능하다. 우리를 일컬어 서방선진국 사람들은 제2의 일본이니, 경제기적을 이룩한 무서운 국민이니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지만 이들에게 우리내면의 치부를 드러내어 우리국민의 이미지를 그르치고 나아가서 국가이익이 훼손된다면 이것은 한마디로 심각한 얘기가 아닐 수 없다. 이제 '88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루고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경제와 문화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조성을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자연을 보호하고 아끼는 국민적 의식전환에 노력의 아낌이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 : 경기도 과천시 주공APT.909동 502호 ·主婦)